



이음, 제주

삶과 공존하는 도시재생

TRACK.20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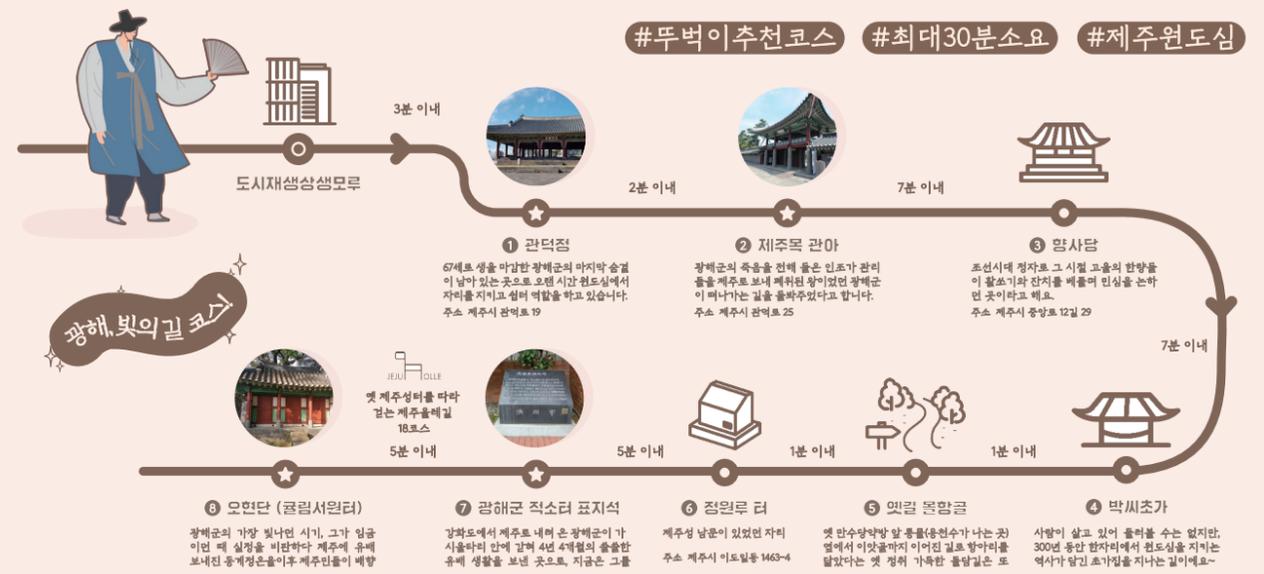
3 MAP 광해군을 테마로 떠나는 제주 원도심 여행지도	20 PEOPLE 광해군의 시 '제주적중' 유리문진 더이달랜더
4 PLACE 제주에서 만나는 광해군 이야기 2020 으라차차, 어쨌든 원도심	22 PEOPLE 광해 이야기를 담은 광해밥상 '광해보리파배기'
6 PLACE 광해군 테마 상품	24 MINI INTERVIEW 2020 도시재생을 통해 바라본 원도심 말 말 말
8 OPINION 도시재생, 가지지 못한 이들을 바라보자	26 ZOOM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교육
10 PLACE 오래된 동네 무근성	28 ARCHIVE 제주의 일상, 흑백사진에 스미다
12 PLACE 걷고 싶은 길, 가고 싶은 골목 무근성7길 유흥업소 업종전환 지원사업	32 REPORTAGE 문화를 통해 지역을 이야기하다
14 INSIGHT 기록되어야 역사가 된다 주민생애사 구술채록	34 LIBRARY 주민의 직접 동네를 발전시키다 2021년, 도시재생에비사업
16 INSIGHT 구술채록으로 만나는 진짜 제주	36 NEWS
18 PLACE 집을 고치고 삶이 나아지다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발행일 2020년 12월 31일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칠성로2길) 발행·편집인 부성현
기획·편집·디자인·제작 주드(010-2574-9679) 인쇄 태웅씨엔피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064-727-0617
홈페이지 www.jeuregen.org <이음, 제주>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의 콘텐츠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광해, 원도심을 깨우다! 400년전 광해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원도심 시간여행

광해의 마지막 숨결이 남아있는 원도심은 오래전부터 제주의 문화, 행정,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제주의 빛나는 시기를 함께했던 원도심의 과거와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현재가 함께하는 시간여행 파란만장한 광해군의 삶을 원도심 공방과 작가들의 시선으로, 광해군이 즐겨 드시던 음식들을 제주의 로컬푸드로 새롭게 재해석하였습니다.
원도심 곳곳에 커커이 쌓여있는 광해의 이야기를 찾아 떠나보세요.



#뚜벅이추천코스 #최대30분소요 #제주원도심

제주에서 만나는 광해군 이야기 2020 으라차차, 어쨌든 원도심

제주에 유배 온 유일 왕 '광해군'.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는 광해군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제주시 원도심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자 광해군 테마 음식, 기념품, 체험 프로그램인
'2020 으라차차, 어쨌든 원도심' 지역 상생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도시재생, 제주의 이야기를 담다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 친밀감을 높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바로 이야기다. 지역이 갖는 특별한 이야기, 전설, 구전 등이다.

제주의 매력적인 이야기는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다. 2년전 개봉, 극장가를 휩쓴 영화 '신과 함께'는 주호민의 웹툰을 영화화했고, 작가가 모티브로 삼은 것이 바로 제주신화였다. 보다 가깝게 이야기는 매력적인 상품, 장소나 관광프로그램으로도 재탄생할 수 있다. 제주 원도심의 역사로 남아있는 광해군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이라 할만하다.

광해군,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 넣다

'2020 으라차차, 어쨌든 원도심' 지역 상생 프로그램은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한 유일한 왕 '광해군' 이야기를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연계, 역사와 문화적 콘텐츠를 관광 상품으로 발전 시킨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9년 6월 제주대 스토리텔링연구개발센터,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 광해군 콘텐츠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프로그램은 총 5가지로 '광해, 빛의 길을 걷다', '원도심 광해 요리사(광해군 테마 레시피)', '광해군 테마 기념품 및 체험 프로그램', '으라차차, 어쨌든 원도심 캠페인', '온라인 토크-원도심 광해를 만나다'이다. 원도심 광해 요리사 프로그램에서는 지역 내 음식점, 카페 등 7개 사업장이 참여, 조아집요 등 문헌에도 등장한 광해군이 즐겨 먹은 것으로 알

려진 파배기와 광해가 등장하는 영화에 나왔던 단팔죽 등을 제주에 맞게 만들었다. 또한, 광해군이 좋아했던 잡채를 제주식으로 재해석한 광해고사리잡채소반, 한라산 기슭 아래서 수확되는 제주산 감귤과 로컬 식재료를 활용해 광해군이 드셨을 것 같은 건강 간식 심자굴빙, 조선시대 연회에 거의 빠짐 없이 올려졌던 약반 등을 광해군 이야기와 함께 맛볼 수 있다.

더불어 원도심에서 활동하는 공방과 작가들이 중심이 돼 7개 사업장에서 광해의 시 '제주적중'을 새겨놓은 유리문진, 광해 손수건 등의 기념품과 체험 프로그램인 광해 단청 리사이클 벽시계 체험키트 등의 콘텐츠 상품들도 선보였다.

이번에 개발된 14개 사업장의 테마상품은 지난 11월 3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열린 품평회를 통해 첫 선을 보였으며,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공식 시범운영을 거친 후 정식 판매중이며, 찾는 사람들이 많아 상품들이 조기매진되는 등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광해를 테마로 한 콘텐츠 상품의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다"며 "단순 일회성 이벤트 및 한시적 프로그램의 한계를 벗어나 민간과 협력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소중한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제주에는 역사,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지역을 발전 시키고 정체성을 강화시켜 준다.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다양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전략과 확산을 위한 전략, 이해 관계자의 참여, 방문객들을 통한 재확산 등의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일어나야 지역 콘텐츠를 상승시킬 수 있다. 이번 사업 역시 이런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제주로컬푸드로 재해석한 광해밥상

원도심 광해 요리사. 광해소반

임금님께 올리는 두 번째 작은 상으로 실속형 한상차림



광해고사리잡채소반 (고사리국, 돛기파적, 고사리잡채, 보리침채, 전유어)

이층이 만든 '잡채'를 특히 좋아하던 광해군이 어쩌면 제주에서도 그리워했을지 모를 잡채를 제주식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고사리잡채를 안주삼아 모주 한잔 마시던 광해군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상 호 명 국수마침
주 소 제주시 관덕로 2길 24
전화번호 064-752-3552

원도심 광해 요리사. 광해행찬

간편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임금님 나들이 음식



동백꽃약반&청굴이차

조선시대 귀한 찬품이던 약반에 제주 동백꽃의 마음을 담아 만든 동백꽃약반과 한라산 기술에서 수확되는 청굴차 한잔을 마시며 육지부 세상을 풍월하길 광해군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상 호 명 카페효주
주 소 제주시 관덕로 8
전화번호 064-900-6607



심지굴빙&심지굴조청

임금이던 광해군이 드셨을 것 같은 건강한 간식 심지굴빙은 한라산 기술 아래서 수확되는 제주 산 감귤과 로컬 식재료를 구절판을 생각하며 한 그릇에 담아 만들었다.

상 호 명 카페심지
주 소 제주시 칠성로길 8
전화번호 064-723-3278



팔죽빙소반&팔꽃단팥죽(컵용)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2012)'에 나왔던 것처럼 광해군은 단팥죽을 좋아했다. 광해군이 몸이 나른할 때 드시고 기운을 차린 팔죽상에 뽕씨가 숨어있는 빙떡, 그리고 물김치가 잘 어울리는 소반상이다.

상 호 명 건입동 백설공주
주 소 제주시 중앙로 1길 34-6
전화번호 064-752-1359



메밀굴병과

임금이던 광해군이 아식으로 드셨을 것 같은 곱창 가득한 굴피로 만든 병과는 오늘도 한양을 그리며 떠난한 모주 한 잔 마시는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상 호 명 백년굴화다
주 소 제주시 중앙로11길 1, 제주청년물 1층
전화번호 010-8676-1876



광해보리파배기

광해군이 인조반정 당시 김상공과 함께 왕으로서 마지막으로 드셨던 음식 파배기(마화병)를 생각하며 제주산 보리와 밀로 만든 반죽에 참깨를 넣어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광해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상 호 명 동문올레짬뽕
주 소 제주시 오현길 8
전화번호 064-721-6161



메밀고사리잡채행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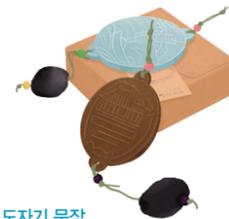
광해군이 유배를 보내, 후일 제주5현이 된 동계 정온(鄭溫 1569~1642)은 제주강씨 연인이 깎아온 고사리를 좋아해 서재를 채미현(고사리를 깎는 집)이라 했을 정도였다. 고사리를 먹는 정온을 생각하며 관덕정 길로 떠나보자

상 호 명 럭키분식
주 소 제주시 오현길 79
전화번호 010-3694-4982

원도심 공방과 작가들이 재해석한 광해군 기념품과 체험키트

원도심 광해 공방. 광해 기념품

광해군의 삶을 기억하다



광해 도자기 문장 '광해에게 묻는다. 편안 허시우파?'

광해군의 제주 유배길과 당시 제주성의 모습, 제주백성을 형상화한 돌맹이를 연출하여 도자기로 제작했다. 광해군이 제주인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과 백성이 광해군을 바라보던 마음을 표현했다.

상 호 명 요보록소보록
주 소 제주시 관덕로 6길 16, 1층
전화번호 064-721-7041



'제주적중' 광해군 손수건

광해군의 시 '제주적중'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을 패턴화한 손수건이다.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돌단, 파란만장한 운명을 나타내는 파도, 머나먼 섬에서 흘린 고독과 절망의 눈물을 형상화하여 표현했다.

상 호 명 피크닉메이트
주 소 제주시 중앙로 11길 1, 제주청년물 103호
전화번호 070-8900-8200



'광해군의 시' 유리문진

투명한 유리를 통해 투영되는 광해의 시 '제주적중'은 광해군이 유배 중에 썼다는 시로, 나라에 대한 애환과 함께 폐위된 임금으로 본인이 감당해야 했던 애환과 함께 폐위된 임금으로 본인이 감당해야 했던 험난한 유배생활을 보내던 심정을 담고 있다.

상 호 명 더 아일랜드
주 소 제주시 중앙로7길 31, 102호
전화번호 070-8811-9562

원도심 광해 작가. 광해 체험키트

광해군의 삶을 추억하다



광해단청 리사이클 벽시계

광해군 이름에서 모티브를 얻어 '빛과 바다'라는 상징적 아이템. 그리고 제주 유배의 역사를 담은 일러스트와 이를 활용한 리사이클 벽시계 체험 프로그램 키트를 개발했다.

상 호 명 콜라보 스튜디오
주 소 제주시 관덕로 6길 6
전화번호 064-721-0884



광해 왕 따스군, 소금팩

왕의 곤룡포를 모티브로 한 미니 어저 의복과 광목으로 만든 소금 주머니로 추운 날 핫팩으로 사용 가능하며 뽕송뽕송한 소금의 제습 효과와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 가능하다.

상 호 명 그릇이야기 최작
주 소 제주시 관덕로6길 6
전화번호 064-722-5735



'빛나는 바다' 마스크 파우치 목걸이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보냈던 광해군을 제주의 바다, 탕자나무 등으로 표현하여 자체 디자인 원단을 사용한 파우치로 마스크를 보관하는 주머니는 물론 동전 지갑, 열쇠, 안경 주머니로도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주머니다.

상 호 명 작은섬표
주 소 제주시 관덕로6길 20, 1층
전화번호 064-755-5758



'왕이 사랑한 말' 컬러링 페이퍼&페이퍼 커팅

임진왜란 때 제주에서 말을 공양한 김만일에게 '현마공신'이라는 큰 벼슬을 내린 광해군의 기록을 바탕으로 재창작한 이야기를 담아 제작된 제주마에 관한 컬러링&페이퍼 커팅 체험 프로그램이다.

상 호 명 가미앤조이
주 소 제주시 관덕로6길 13
전화번호 064-752-2750

도시재생, 가지지 못한 이들을 바라보자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2020년, 거주환경이 빈약한 이들에게 이런 바이러스의 창궐은 삶을 더 힘들게 한다. 그렇다면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 도시재생은 무엇일까. 가진 자를 위한 도시재생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 도시재생을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김형훈 미디어제주 편집국장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일이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일 줄 누가 알았나. 어찌 보면 '질병을 공유하는', 그것도 '글로벌 공유'이다. 기록이 있는 역사기간을 통틀어 2020년 한해만 그런 일을 경험한 건 아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0년 전의 제주사람들도 그랬다. 1822년의 콜레라는 듣도 보도 못한 '글로벌 공유'였다. 단지 다르다면 의료 환경 덕에 지금은 다행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고, 1822년 제주 환경은 수천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점이다. 바이러스는 인류를 향해 늘 싸움을 건다. 코로나19가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는 숙주로서의 인류를 찾고, 어느 시점의 인류가 해당될지 모르지만 그 인류는 낯선 상황을 처음 경험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접촉'이 두려워진다. 사람은 주변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인데, 그게 무너지는 걸 코로나19로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인류를 향해 반성을 하라고 하지만, 그 반성에 앞서 우리의 생존이 더 급한 게 현실이다. 특히 거주환경이 빈약한 이들에게 이런 바이러스의 창궐은 삶을 더 힘들게 만든다. 거주를 편안하게 해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

는 도시재생이 그래서 필요하다. 도시재생의 시작점도 빈약한 삶을 개선하는 데서부터 시작했다는 점은 무척 중요하다.

18세기 초,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영국, 유럽의 당시 풍경은 사람들의 도시 이동이다. 그런 풍경은 도시 빈민을 낳았다. 프랑스도 다를 건 없었다. 영국과 프랑스 대도시의 사람들은 엉겨붙어 살았다. 가지지 못한 이들은 대소변, 쥐의 습격, 더러운 물, 각종 전염병과 살았다. 인구증가에 따른 하천, 공기의 오염 역시 가지지 못한 이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 각종 도시문제는 환경개선을 자연스레 요구했다. 19세기에 오면 그런 고민을 털어내는 작업이 이뤄진다. 길거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뤄지던 가지지 못한 이들의 대소변 행위는 공중변소가 나타나면서 사라졌다. 프랑스 파리엔 '알렉상드린'이라고 불리는 공중변소가 등장했고, 그건 획기적인 보건 기술이었다. 그걸 누군가는 엔지니어의 역할이라고 한다. 왜냐, 뜻하지 않게 대소변으로 들끓던 자리는 카페가 대신하고, 파리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참, 아이러니하다. 가지지 못한 이들의 대소변 장소가 카페로 변했다는 사실이다. 도시

재생은 이렇듯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 사례를 언급해본다. 2019년과 2020년 두 해 동안 도시재생을 경험했다. 제주시의 '생활 속 실험실(리빙랩)' 사업에 뛰어들어 도시재생을 실현했다. 제주시가 공공문화기획자를 모집한다고 하길래 지원을 했는데, 도시재생을 직접 실현하게 되었으니 경험치고는 품질이 높았다고 해야겠다. 공공문화기획자를 신청한 사람끼리 팀을 구성했다. 도시재생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 나누어주고 만든다는 의미에서 '수놓엉멍글엉'이라는 팀을 조직했다.

수놓엉멍글엉이 진행한 도시재생은 생활속 불편을 직접 해소하는 일이었다. 거창한 도시재생과 거리가 멀다. 지역은 조천읍 조천리로 설정을 했다. 조천은 역사가 깊은 마을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주변에 비해서는 개발 진척이 느리다. 덕분에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골목을 바꾸자며 생각을 모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골목 주변에 사는 이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했다.

할머니 혼자이거나 장애를 지닌 채 어렵게 사는 이들을 만났다. 요즘 세상에도 어렵게 사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그들에

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도시재생을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는 계기였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은 수십억, 수백억원의 돈을 뿌리는 사업이다. 과연 그런 도시재생은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변화를 줄까. 도시재생이 삶을 개선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지녔는데, 수놓엉멍글엉을 추진하며 "가능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마당에 자갈이 깔린 집에 사는 김 할머니는 마당을 걸을 때마다 불편을 느낀다. 마당은 울퉁불퉁했고, 넘어지기도 했다. 김 할머니는 우리(수놓엉멍글엉)에게 마당을 평평하게만 해달라는 단순한 요구를 해왔다. 마당 평탄작업을 하며 무너져있던 돌담도 바로 세웠다. 그걸로 끝은 아니었다. 낮은 화장실 바닥은 비만 오면 빗물로 흥건했다. 화장실을 고쳤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더 문제는 지붕이었다. 함석지붕에 비가 새지 않게 덧댔다. 해야 할 일은 더 많았다. 김 할머니가 사는데 더 편리하라고 싱크대도 교체해야 하는데 그건 해주지 못했다.

김 할머니와 이웃한 신 할머니 주택, 대문만 고치기로 했다. 비바람에 너털너털하던 대문을 새로 단장했다. 물론 그걸로 끝은 아니었다. 화장실은 외부에 있어서, 화장실까지 이어지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화장실도 손을 대야 했다. 이왕 손을 댄 것, 외부 벽면의 페인트 작업도 진행되었다.

두 사례만 늘어놓았는데, 2년 연속 진행된 이 사업은 사회의 낮은 곳을 향하는 도시재생을 말하고 있다. 도시재생은 거창한 일은 아니다. 삶이 불편하지 않아야 최선이 된다. 도시재생의 가장 큰 수혜자는 가진 자들이다. 도시재생을 통해 수십억, 수백억 원의 돈이 들어가면 해당 지구는 확 달라진다. 자연스레 땅의 가치가 오르고, 집의 가치가 오른다. 가진 자는 앉아서 돈이 주머니에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문제는 가지지 못한 자들이다. 가지지 못한 이들은 남의 집에 얹혀살거나, 아주 좁은 공간에 비비며 산다. 그런 이들에게는 수실, 수백억 원을 들인 도시재생이 잘 다가오지 않는다. 남의 집에 얹혀살던, 이른바 집을 빌려야 하는 '임차인'은 자칫 쫓겨나기도 한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집주인이 임대료를 더이상 해주지 않고, 자신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빌려주지 않는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현상도 발생한다. 아주 작은 공간에 사는 사람도 도시재생의 혜택은 그리 크지 않다. 그 작은 공간

에서 할 건 별로 없다.

이쯤에서 생각해보자.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 도시재생이 무엇일까. 코로나19라는 상황과도 맞물린다. 코로나19는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 최악이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집에서 생활해야 한다면 삶을 더 힘들게 만들 뿐이다. 벌어오는 것도 문제이거나, 환경이 열악한 집에서 버티는 것도 힘들다. 때문에, 우리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 도시재생을 돌려줘야 한다. 어렵진 않다. 불편한 사항을 즉각 해소해주면 된다. 차가운 겨울철, 옷풍이 심한 집안의 공기는 차갑다. 코로나19여서 옮겨다나기도 힘든데, 옷풍은 가지지 못한 이들에겐 힘겨운 싸움이다. 보일러를 틀고 싶지만 기름값이 걱정이다. 이런 고민을 지닌 이들에게 옷풍을 해소해주는 일이 필요하다. 아주 작지만 그건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공생을 위한 일이다.

지금도 자신들의 불편이, 불편인지 모르고 생활하는 이들이 많다. 도시재생은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일이다. 가진 자를 위한 도시재생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 도시재생을 위해 달려가야 한다. 19세기 파리에서 행해졌던 '알렉상드린'처럼.



오래된 동네 무근성

무근성은 제주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동네이자 진짜 제주를 마주할 수 있는 동네이기 때문이다.
주민과 함께 상생하며 소중한 옛 것을 보존하는 방법은 없을까?
무근성 이야기를 통해 모두가 고민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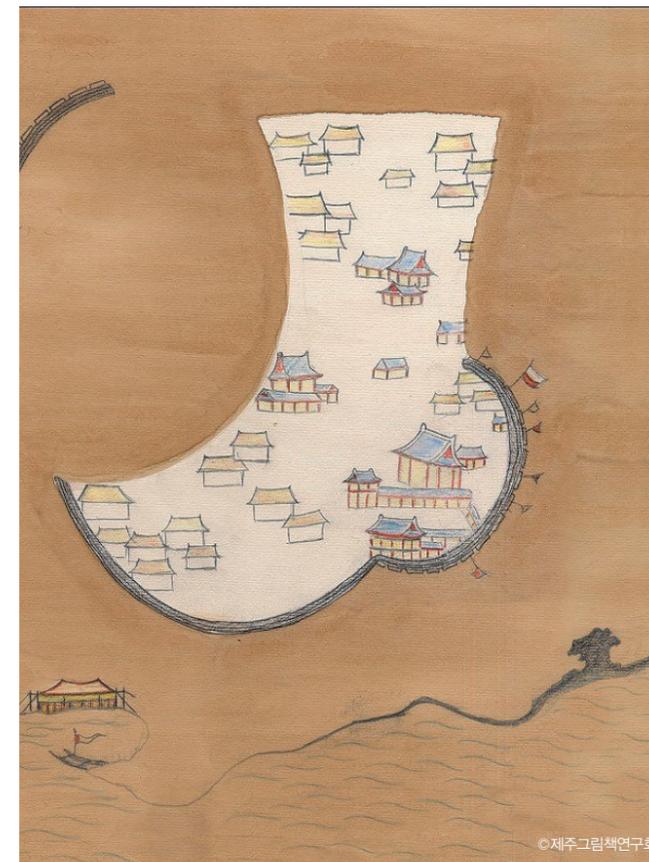
자문 고정연 마을회장

오래된 성곽 '무근城'

제주시 삼도2동에는 오래된 동네 '무근성'이 있다. 탐라시대에 성이 있었던 자리로, 조선시대에 와서 제주읍성을 새로 쌓으면서 새 성에 대비해 '목은' 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데서 동네 이름이 유래했다고 한다. 제주시에서 표석 세우기 사업의 하나로 동네 한 켠에 설치한 '탐라시대 고성터' 빛돌에 새겨진 내용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찾아 볼 수 있다. "탐라국시대의 성터다. '탐라지' 등 옛 기록에 '주성 서북쪽에 옛 성터가 남아있다'는 것으로 보아 이 일대는 조선시대 이전의 성터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때의 성은 대체로 병문천 동안에서부터 산지천 서안에 걸쳐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0~70년대 무근성은 제주에서 가장 번성했

던 마을이었다. 제주의 8학군으로 불렸던 북초등학교, 한두기로 넘어가는 배고픈 다리, 버랭이깎에서 놀던 아이들, 간장 공장과 국수 공장, 피난민촌, 목욕탕과 이발관, 뽕뽕이 모여 있는 주택들까지 제주의 중심이자 가장 변화한 주택이었다. 제주도 최초의 호텔 동양여관을 비롯해 탐라호텔 등 제주의 최신 시설 역시 무근성에 위치해 있었다. 또한, '갈비골목'이 생겨날 정도로 식당들도 넘쳐 났다. 제주시청, 법원, 경찰청 등 주요 공공기관이 모여있는 동네였기 때문이다.

PLACE



©제주그림책연구회

왕할머니 버선처럼 생긴 동네

무근성이 있는 삼도2동은 관덕정, 제주목관아 등을 품고 있다. 지도에서 보면 마치 버선 한 짝을 그려놓은 모양새를 하고 있는데 탐동 바다 쪽이 버선 바닥에 해당한다. 2003년 발간된 '제주의 핵심 삼도2동'지를 보면 버선 모양 행정 구역 안에 무근성, 탐동, 남성마을, 새성안이 자리하고 있다. 그 중 오래된 마을이 제주목관아 서북쪽에 해당하는 무근성으로 삼도2동하면 떠올릴 만큼 오래된 주거지다. 무근성 일대에서 쉬이 만날 수 있는 좁은 골목길, 오랜 시간을 품고 있는 집들의 대문과 지붕이 시간의 여정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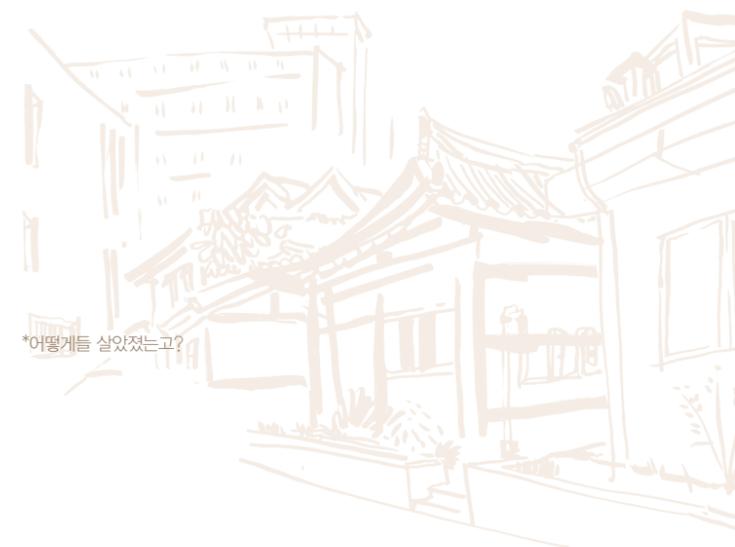
2006년 제주그림책연구회는 하나 둘 사라져가는 우리의 옛모습을 그림책에서만이라도 기억하고 간직하고 싶다는 뜻을 담아 '우리 동네 무근성'이란 그림책을 펴냈다. 무근성 일대를 꾸준히 답사하며 30~40년, 혹은 평생을 무근성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에 담았다.

"우리 동네엔 좁고 길다란 골목이 많았대요. 왕할머니의 어릴 적 놀이터였던 울레는 넓은 길이 되었어요. 이 길을 지날 때마다 왕할머니는 '어떻게 살았겠고?'* 혼잣말을 하십니다."

무근성은 책에 담긴 이야기처럼 사람들의 추억과 숨결이 옛모습으로 남아 있는 곳이다.

삶을 계속 이어가다

삶의 흔적을 품고 있는 오래된 동네 무근성에는 제주만의 낭만과 정취가 오롯이 살아 있다.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정겹게 맞닿은 주택가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건물, 돌담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날 때마다 정겹게 반겨주는 것만 같다. 제주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인 무근성이 개발과 변화라는 명목아래 하나 둘 사라지기 전에 주민과 함께 상생하고 소중한 옛 것에 대한 보존방법 등을 함께 모색해야 할 때이다. 이에 제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무근성7길 복원을 위해 환경개선사업 등 여러 시도들을 하나씩 해 나가고 있다.



*어떻게 살았겠고?

걷고 싶은 길, 가고 싶은 골목 무근성7길 유흥업소 업종전환 지원사업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무근성 7길 유흥업소 밀집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유흥업소 일부에 대해 일반음식점 등으로 업종 전환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행정과 주민, 유흥업소 사업주 등이 함께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원도심 무근성 일대의 변화를 들여다보자.



제주흑우컵밥 (오전메뉴)



낙지수육 (오후메뉴)



무근성, 걷기 좋은 거리로 만든다

제주북초등학교 부근 무근성 7길은 탐라국 시절 정치·경제·행정 중심의 마을이자 원도심의 상징적인 곳으로, 제주성이 허물어진 곳에 생긴 골목길이자 지역 주민들의 주요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근에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어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었다. 그래서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는 무근성 7길 유해 환경 개선을 위해 유흥업소 업종전환 등의 환경 개선 사업에 착수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무근성7길에 위치한 가게들의 간판·조명·건물 외부 정비와 함께 유흥업소 업종전환 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바램이었던 무근성7길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과 주민, 유흥업소 사업주 등 민·관이 뜻을 모아 함께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모두 모여 함께 만드는 무근성길

지난 11월 무근성7길에 작은 식당이 문을 열었다. 바로 '무근성 모다들영'이다.

'모다들영'은 제주어로 '모두 다 함께'라는 뜻으로, 주인장은 모두 함께 즐겁게 식사하는 곳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식당 이름을 지었다고 했다. 어느 식당과 같아 보이지만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 식당의 주인은 지난 8년간 같은 자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했던 이은순(64)씨다. 육지에서 제주로 와 술장사를 시작했지만, 사실 적성에 맞는 일이 아니라 항상 고되었다고 말하는 그녀다.

식당을 하기로 결정 내리기까지 고민이 많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피해가 적지 않았고, 손맛에 대한 자신이 있었기에 결국 마음을 굳혔다고. 물론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의 끈질기고도 친절한 설명에 설득된 점도 없지 않다고 한다.

그 시작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난 9월 낸 '무근성7길 유흥업소 업종 전환 지원 희망 사업주 모집' 공고였다. 여기에 이은순씨가 선정, 업종 전환에 따른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게 되며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전문가들과 함께 일반음식점 업종전환에 따른 행정절차를 밟고, 메뉴 선정을 위해 문동일 조리기능장에게서 레시피 개발 교육을 받았다. 과거 유흥업소였던 가게 '황금민들레'는 전문가의 손길로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이자 지역주민들의 보행로임을 감안하여 밝고 깔끔한 인테리어로 재탄생 하였다.

'무근성 모다들영'의 주인장 이은순씨는 가게를 새로이 열고 찾아준 많은 동네 사람들이 '가게가 이쁘다', '맛이 좋다'는 칭찬일색에, '얼굴이 살아났다'는 말도 많이 듣는다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원도심이 살아나고 있다는 반증일까. 비슷한 시기에 인근 가게들도 속속 새단장을 하며 무근성7길에는 연일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옛 목욕탕이 카페와 전시장으로 재탄생한 '리듬앤브루스', 간판마저 양중맛은 '제주시새우리', 음식 플레이팅이 돋보이는 '유메'는 연일 관광객들의 포토존이 되어 무근성7길이 젊어지는 데 가히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새 바람을 등에 업고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는 '무근성 모다들영'뿐만 아니라 다른 유흥주점 한 곳도 업종변경을 진행 중으로,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무근성7길 골목의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 주 소 제주시 무근성7길 1
- 운영시간 8:00~21:00(낮시간 간단한 식사위주)
브레이크 타임 15:00 ~ 17:00
매주 수요일 휴무
- 메뉴 제주 흑우 컵밥 7,000원 낙지볶음 컵밥 6,000원
전복 개우 툷 컵밥 6,000원, 낙지볶음밥 10,000원



기록되어야 역사가 된다 주민생애사 구술채록



구술이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되는 시대.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의 일환인
‘주민생애사 구술채록’ 사업을 통해 기존 문헌에서
느낄 수 없었던 개인사와 지역생활사를 보다 섬세하고
정겹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모든 이야기가 기록되어 왔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의 기록은 시대의 산물이기도 하다. 구술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사람이 같은 눈높이에서 커뮤니케이션 되어야 한다. 누구를 인터뷰 하여 기록하느냐 못지않게 어떤 태도로 이야기를 듣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구술채록 사업은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거나 증언 집이나 구술집 발간을 위해서 주로 진행된다.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역시 20세기 이후 변화와 성장을 보인 제주시 원도심의 근현대사의 기록을 위해 주민생활사를 기록·정리한 구술집 ‘기억에 말을 걸다 - 제주시 원도심 문화사 2가지 이야기’를 발간했다. 이 책은 201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의 일환인 ‘주민생애사 구술채록’ 사업의 결과물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구술채록은 기존의 문헌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개인사와 지역생활사를 매우 섬세하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부성현 센터장은 발간사에서 “도시 주민들의 일상은 날마다 똑같이 되풀이 되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의 생애로 보면 변화의 지속입니다. 시대를 거쳐 지속되는 주민들의 삶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루는 토대라 할 수 있다”며 “이 책이 도시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내밀한 일상과 삶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이웃들의 지나온 삶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책은 옛 제주 사람들이 생활하던 방식, 삶에 대한 기록이다. 우리의 생활방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진다. 삶의 방식이 달라지면서 과거의 삶에 대한 기억도 사라지게 되는데,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다만 그 기억마저 잃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삶의 모습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온전히 남아 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이야기를 꺼내어 기록으로 남긴 이번 작업은 주민생활사의 기록을 넘어 제주 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제주시 원도심은 천년 역사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는 곳이다. 제주의 역사, 문화, 경제의 중심지로 제주 근현대 유산이 주민들이 삶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 또한, 20세기 이후 변화와 성장을 겪은 지역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원도심은 근현대사의 기록이 시급한 지역으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민생활사를 기록·정리함으로써 이 지역 삶의 기억을 작은 책으로 남길 수 있어서 다행이다.

오래된 과거에서 미래를 본다고 한다. 이 책을 통해 제주시 원도심의 살아 있는 역사가 미래세대로 전승되고 현재를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구술채록으로 만나는 진짜 제주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의 일환인 ‘주민생애사 구술채록’ 속
일부 내용을 만나보자.



“

색이 변한 은반지 사건

은도 안 맞는 사람은 안 맞는다고 해요.

은은 옛날부터 잡귀방지라고 해서 임금님 상에 은수저를 놓았잖아요. 독성을 가려내기 위해서. 경행(그래서) 우리 우스운 얘기로 은반지, 그 당시 연날에(옛날에) 은 용반지가 많이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용반지를 어떤 사람이 오전에 완(와서) 사갔는데 저녁 때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휴대폰도 없을 때니까 가게 전화로 왔는데 옥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참 황당한 거죠. 왜 옥을 그렇게 하나고 하나까 "왜 가짜를 팔아 가지고 말아야, 그렇게 옥을 쳐 먹을라고 했냐?"라고 해서 "아줌마 어디 있습니까?"라고 물으니 결혼식 집에 와서 초무침 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무침이 원인이었는데, 초(식초)만 들어가면 독성이니까 은이 변했던 거죠.

구술집 [기억에 말을 걸다 - 제주시 원도심 문화사 21가지 이야기]
칠성로 금은방 시대와 황금당, p.24

“

바닷가재 먹는 방법을 가르쳐준 미군들

그때 뭐 솔직히 미 8군 와서 많이 개발 시켰죠. 그때 한림에서 가재가 나오는데 그거 먹을 줄 몰라서(몰라서) 다 던져 버렸습니까(버렸습니까). 대구에서 한 마리에 2만원, 3만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에서는 한림 쪽에 가재가 잡혔어요. 근데 한림아이들 다 던져 버렸는데(버렸는데) 미군들이 와서 가재 먹는 법을 가르쳐줘서 먹었다고 해요.

구술집 [기억에 말을 걸다 - 제주시 원도심 문화사 21가지 이야기]
바닷가재 먹는 방법을 가르쳐준 미군들, p.39

복어 먹는 법을 가르쳐준 피난민들

복(복어) 있지 않습니까? 복이 제주도 말로 복쟁이라고 하는데 막 호면(하면) 돌에 기념(그냥) 해서 죽거든. 그거 다 던져 버렸어요(버렸어요). 독을 빼야 되는데 먹을 줄 몰라서. 그리고 6.25 후에 피난민들이 먹는 거 보고 제주도에서도 복(복어)을 먹기 시작했어요.

구술집 [기억에 말을 걸다 - 제주시 원도심 문화사 21가지 이야기]
복어 먹는 법을 알려준 피난민들, p.38



“

〈제일극장〉 옆집이었던 어린 시절 살던 집

연날에는(옛날에는) 지금처럼 막 문화가 이렇게 다양하지가 않으니깐 극장 아니면 서커스 이런 거 올 때만이(때가) 우리가 문화를 누리는 거였죠. 그때는 영화 보는 게 오로지 사람들의 낙이었으니깐. 좋은 영화를 기다려서 볼 정도였지. 우리집 담 옆이 극장이었는데 저녁되면(저녁되면) 아이들이 영화를 보고 싶어서 우리 집 담 밑에서 기다려요. 그 담을 기도가 지키는데, 표 받는 사람도 지키지만은 종업원들도 글로(거기로) 들어갈 수 있으니깐 아이들이 몰래 들어 올 까봐 지키는 거지. 극장에서 대한뉴스가 끝나고 영화가 상영되면 이 사람들도 하나 둘 불일 보러 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한발로 담을 넘어 쪽 올라가는데 맨 마지막 아이가 걸리면 그 녀석만 매를 맞는 거지.

구술집 [기억에 말을 걸다 - 제주시 원도심 문화사 21가지 이야기]
‘제일극장’ 담벼락 너머 영화 한 자락, p.53

“

제주도 첫 교통신호등

제주에 차는 많이 늘어나는데 도로가 좁아서 교차로에서 사고가 많이 났어요. 여기도 이제 교통신호등을 만들어야(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우리 경찰국이 잘 없어요. 그래서 지방 시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서귀포에 한군데 그 다음 여기는(제주시는) 중앙, 동문, 광양(로터리) 여기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했죠. 지금은 화살표시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빨강, 노랑, 녹색 이렇게 세 가지 신호등만 있었는데 사람들이 신호등을 어떻게 보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신호등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지금 같으면 문제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시민회관에 이틀간 모아 놓고 모조지 전지 이만한 걸 네 개 붙여가지고 빨강, 노랑, 파랑 그려서 내가 교육을 시켰죠.

구술집 [기억에 말을 걸다 - 제주시 원도심 문화사 21가지 이야기]
제주의 첫 교통신호등을 아시나요?, p.64

“

유명했던 칠성로 빵집 : 〈호남빵집〉, 〈영춘빵집〉, 〈경남빵집〉, 〈제일빵집〉

옛날에는 빵집에서 남학생하고 데이트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는 약소 장소였어요. 기억나는 빵집은 〈호남빵집〉, 〈영춘빵집〉이 있었고 〈제일빵집〉하고 또 〈경남빵집〉인가? 〈영춘빵집〉은 썬빵이 60~70년대까지도 유명했어요. 하얀 빵 속에 까만 팔이 들어갔는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 옆에 조금 나중에 생긴 〈제일빵집〉이 있었죠. 그 당시 호라이 빵이라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라' 자에다가 'o'을 써서 호랑이 빵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 빵을 〈호남빵집〉에서 팔았는데, 요즘 말하는 팔빵, 곰보빵이에요.

구술집 [기억에 말을 걸다 - 제주시 원도심 문화사 21가지 이야기]
호라이빵, 호랑이빵, 소보로빵, p.28

“

무진장수백봉

북국민학교를 우리가 어릴 때 '무진장수백봉'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 무궁화반, 진달래반, 장미반, 수선화반, 백일홍반, 봉선화반이 있었는데 남자반, 여자반 각각 3반씩 있었어요. 혼합반은 안했는데, 내가 5학년 때는 특별하게 우리가 혼합반을 했어요.

구술집 [기억에 말을 걸다 - 제주시 원도심 문화사 21가지 이야기]
무진장수백봉을 아시나요?, p.43

집을 고치고 삶이 나아지다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자치단체와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이다. 제주시재생지원센터는 원도심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으로 변화된 마을의 모습을 만나보자.

급속도로 발전한 경제성장과 함께 무분별한 확장을 거듭해 오던 도시가 경제의 고도성장이 붕괴되고,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 등으로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런 도시의 기능을 되살리고자 토지 이용률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도시재생'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2020년 도시재생은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화두로 떠올랐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주거환경의 개선과 낙후된 산업단지의 경제 활력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회성 사업에 그쳤던 기존 도시재생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으로 만들려는 노력이란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제주시재생지원센터는 제주시 원도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원도심 지역의 노후 전통주거 및 근대 건축물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지원사업은 도시환경 인프라 개선을 통하여지역주민들의 정주환경 및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사업이다.



(위) 담장 수리 전/후
(아래) 대문 수리 전/후

창호 수리 전/후



집수리지원사업은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20년 이상 노후된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 6월에 걸쳐 12차 정규모집을 진행하였고, 전체 46세대를 확정하였다. 지붕, 창호, 대문, 담장, 벽면 정비 등 외부 경관물에 한해 지원되는 이 사업은 개인 자부담 10% 조건부로, 이후 세대별 맞춤형 집수리 지원이 추진되었다.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자였던 세대주들은 현장인터뷰에서, "올 한해는 코로나로 더욱 힘든 상황이었고, 낡은 집에서 추운 겨울까지 보내야하나 마음까지 움츠러들었는데 낡은 집이 깔끔하게 수선되어 기분이 좋다"고 말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더불어 집수리 지원이 확대되어 지역의 다른 어려운 신 분들도 같은 행복을 누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나그네 꿈 속에서도 한양 땅을 보고 놀라네’ 광해군이 유배 중 썼다는 ‘제주적중’의 시 구절 중 하나다. 더 아일랜드는 폐위된 광해군이 느꼈을 나라에 대한 애환과 험난한 유배생활의 심정을 담은 시를 유리문진에 담아 제품을 개발했다. 더아일랜드가 해석한 광해군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광해군의 시 ‘제주적중’ 유리문진

더아일랜드

주 소 제주시 중앙로7길 31, 102호
 운영시간 11시~20시
 (명절 당일 휴무)
 문의 070-8811-9562



광해군 테마 기념품 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궁금합니다.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SNS에 올라온 모집공고를 보고 사업의 취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센터측에서 홍보자료를 주시고 가셨는데 꼼꼼히 읽어보니 참여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어요. 저희 매장은 제주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념품을 판매, 제작하는 업체이다 보니 항상 새로운 아이템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데 제주와 광해라는 테마가 흥미롭고 도전의식을 불러 일으켰어요. 광해군이 제주로 유배를 온 역사도 이번 사업을 통해 더욱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이번 사업을 통해 광해군의 시 ‘제주적중’을 유리문진으로 제작했는데 이 제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나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광해군 관련 책과 강의 등 다양한 자료를 찾아 보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한 자료가 많지 않더라고요. 제주에서 8년 3개월간 유배생활을 한 추사 김정희 선생의 경우 유배기간 동안 우리나라 최고의 필체인 추사체를 완성하고 유명한 세한도를 그리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서 자료가 많은데 광해군의 경우는 교민과 교류가 거의 없어서 사실 자료를 찾는데 고생을 좀 했어요.

자료를 찾던 중 광해군이 유배길에 쓴 한시를 알게 되었어요. ‘제주적중’이란 한시에서 폐위된 왕, 광해군이 감당해야 할 무게, 험난한 유배생활 중 느꼈을 외로움, 나라에 대한 애환을 느낄 수 있어요.

유리문진을 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나요?

기념품으로 제작할 수 있는 아이템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노트, 다이어리, 엽서 같은 지류 제품이에요. 지류 제품은 예쁜 디자인의 상품들이 눈길을 끄는데 광해군 테마 기념품은 아끼지기한 느낌보다는 울림이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광해

군’이란 콘텐츠를 무겁지도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 않게 밸런스를 맞춰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죠.

광해군의 한자 ‘光’과 빛나는 유리의 빛이 접점을 이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리문진에 광해군의 시를 적은 제품을 만들게 되었어요. 역사 기념품이다 보니 차별화하면서 고급스런 제품을 만들고 싶어 패키지 디자인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광해군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제주적중’ 시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패키지 디자인에 광해군 이야기, 제주적중 시 구절, 유리문진의 사용법을 함께 적어 디자인했어요.

사업장으로 선정된 후 컨설팅 지원을 받았는데, 실제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제작비 지원을 받았어요. 그게 가장 큰 도움이죠(웃음). 아이디어는 있어도 제작비가 없어서 못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센터에서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해줬는데 저희가 놓친 부분들을 체크해 주셨어요. 제작을 하다 보면 못 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체크하고 조언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죠.

만약 다음에 제주를 기반으로 한 굿즈 상품을 개발하게 된다면 어떤 아이템을 만들고 싶나요?

유리문진의 반응을 본 후 추가 상품을 개발할 생각도 있어요. 너무 뻘한 기념품이 아닌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고 싶거든요.

마지막으로 제주 원도심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는지 한마디 해주세요.

원도심에서 10년 넘게 매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낙후된 건물은 깨끗해졌고 좁은 도로는 정비를 통해 넓어졌어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원도심이 잠시 왔다 가는 곳이 아닌 여유롭게 머물면서 먹고,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되었음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차별화된 콘텐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동문올레찐빵에서는 '원도심 광해 요리사' 사업을 통해 제주산 보리와 밀을 이용해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광해보리파배기'를 선보였다. 왕으로서 드셨던 마지막 음식 마화병*(파배기)을 제주의 맛을 더해 재해석한 음식 이야기를 만나보자.

광해 이야기를 담은 광해밥상 '광해보리파배기'

동문올레찐빵

📍 주 소 제주시 오현길 83
⌚ 운영시간 시간 9시30분~19시
(일요일 휴무)
☎ 문의 064-721-6161

* 마화병(麻花餅) : 현대의 파배기에 해당하며, 조선시대 역사를 담은 조야 집요(朝野輯要)에 인조반정 당시 광해군이 드셨다고 기록됨



원도심 광해 요리사(광해군 테마 레시피) 사업에 참여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희 가게 주변이 광해군 유배지역이요, 평소 고전에 관심이 많아서 역사 관련된 책을 즐겨 읽는 편이거든요. 광해군은 조선의 왕 중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아는 왕이잖아요(웃음).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때문에 더 유명(?)해진 왕이니까요. 그런데 제주에 유배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책을 통해 제주에 유배되었다는 사실과 저희 장사하는 곳 일대가 광해군 유배지역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번 '원도심 광해 요리사(광해군 테마 레시피)' 사업 역시 평소 좋아하고 관심이 많았던 광해군을 테마로 음식을 만든다고 해서 바로 참여하게 되었죠.

이번 사업에서 광해보리파배기를 선보였는데 이 음식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저희는 썩, 보리를 넣은 전통찐빵과 도넛, 파배기를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광해군 테마 음식 또한 제주산 보리와 밀을 넣어 반죽 후 참깨를 넣어 고소하면서 담백한 광해보리파배기를 만들었어요. 마화병, 즉 파배기는 광해군이 인조반정 당시 김상궁과 함께 먹었던 마지막 음식이라고 해요. 제주를 대표하는 곡식 중 하나인 보리를 요리 재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보리파배기'를 만들게 되었죠. 광해보리파배기는 제주, 그것도 동문올레찐빵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이에요.

이 음식을 개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나요?

식어도 맛있는 파배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뭐든지 갖 만든 음식이 맛있긴 하지만 식어도 그 맛을 유지하면 좋겠단 생각을 했죠. 광해보리파배기는 곡식을 넣어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파배기에 비해 고소한 맛은 배가 되고 식어도 그 맛을 유지해요.

이 음식을 개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나요?

식어도 맛있는 파배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뭐든지 갖 만든 음식이 맛있긴 하지만 식어도 그 맛을 유지하면 좋겠단 생각을 했죠. 광해보리파배기는 곡식을 넣어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파배기에 비해 고소한 맛은 배가 되고 식어도 그 맛을 유지해요.

감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찹쌀빵을 그때도 많이 만들어서 팔았어요. 씹는 맛도 뛰어나고 고소한 맛도 훨씬 풍부하잖아요. 건강에도 좋고요. 광해보리파배기도 맛과 건강을 모두 맛볼 수 있도록 레시피 개발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사업장으로 선정된 후 레시피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받았는데, 실제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후 문동일 셰프께서 매일 방문해서 레시피 개발을 도와주셨어요. 찹쌀 함량을 맞추는 과정이 매우 중요했는데 문셰프님과 함께 함량을 맞추는 작업을 했어요. 지금은 레시피가 나와서 일정한 맛을 유지할 수 있어요.

지난 11월 상품 품평회를 진행했는데 그때 반응은 어땠나요?

반응이 좋아서 저희도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고소한 맛과 함께 보기도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인다는 평가를 들었죠. 저희 가게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일반 파배기와 모양부터 다르니 많이 물어보세요. 단순히 음식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광해군 이야기를 함께 해드리면 다들 흥미롭게 듣고 사가세요.

마지막으로 제주 원도심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는지 한마디 해주세요.

이번 사업의 목적이 침체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겉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번 사업처럼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찾아올 수 있는 콘텐츠 중심의 사업들이 더욱 많이 개발되면 좋겠어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원도심이 광해군 거리가 된다면 사람들이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2~3일 머물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광해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되면 좋겠어요. '이중섭거리' 처럼요.



2020 도시재생을 통해 바라본 원도심 말 말 말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생활권은 동네로 좁혀지면서 동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한 해이기도 하다. 올 한 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도시재생 사업을 한 땀 한 땀 일궈낸 도시재생센터 직원들의 보람된 순간을 짧게나마 글로 담았다.
더불어 원도심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 가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보다 나은 원도심의 미래를 그려보자.

Q. 올 한 해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소감은?

2020년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였지만
주민들과 우리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제주 원도심의
재생사업 추진은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이 행복한 원도심의 도시재생은
계속 ING입니다!

변화영 사무국장

올 한 해는 우리의 일상을 코로나19가 삼켜버린,
어느 해보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고
신바람 나는 도시재생을 희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다 같이 화이팅!!!

재생사업팀 오신애 연구원

2020년은
삶의 기준이 흔들리는 한 해였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역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사업들을 운영했습니다.
대부분 비대면으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바이러스에서 자유로워지는 날에는 조금 더 자주,
가까이 주민과 현장에 다가가겠습니다.

전략기획팀 고희관 연구원

도시재생으로 지역을 알아간다는
것이 보람입니다.
사람을 알아가고 공간을 알아가고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서로가 만나고 이어진다는 것이 힘을
줍니다. 올 한해도 건강했듯이
내년에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재생지원팀 안현준 팀장

Q.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원도심의 미래는?

원도심이 간직하고 있는 옛 건물,
골목 같은 전통을 다 없애지 말고 보존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빛나는 흑백사진처럼
원도심의 전통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진다면 젊은 사람들도 하나 둘
모여들지 않을까요.

선우스타일 김선우 대표

'온고지신溫故知新'이란 말처럼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원도심의 역사와 시간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주변을 바라본다면 '제주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도심의 미래는
과거와 현재의 조화를 통해 만들어 가면 좋겠어요.

구석카메라 류정철 대표

젊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지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상권도 살아나잖아요.
산지천이나 공원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원도심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나 편의시설 등이
마련되면 좋겠어요.

이희맞춤 이영훈 사장

확실화된 도시개발, 도시재생이 아닌
가치 있는 옛 것들을 잘 보존하면서
현대의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원도심이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옛 것이라고 모두 가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주도의 환경 역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동선구사 김중호 사장

원도심이 전시회, 음악회 등 소소하지만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행사들이
넘쳐나는 곳이 되면 좋겠어요.
지금은 빈집포가 많아 쓸데없는데 이
공간들을 활용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면 활기차고 따뜻한 원도심이
될 것 같아요.

순아커피 정양선 사장

'사람이 커 보이는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교육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교육」을 통해 주민이 직접 도시재생 사업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핵심 인력을 발굴·육성하여 도시재생 주체로 성장을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제주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아카데미

도시재생 이해도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 도민 대상 교양 교육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 역량을 갖춘 활동가 및 코디네이터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주체역량강화교육

도시재생사업 참여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실무 교육

사회적경제 조직화 교육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역량이 강화된 주체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조직화 교육



<2020년 도시재생 아카데미 온라인교육>

교육기간 2020.10.7.~11.19.(6강)
수강인원 239명

도내·외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미래 도시 삶에 대한 생각을 확장하기 위한 온라인 강연으로 운영하였다.

이번 교육은 ▲'지속가능한 제주의 도시를 향한 도시재생'(제주대 이용규교수) ▲'제주의 오래된 담론 : 해녀문화와 도시재생'(한국 평생장학진흥원 허정옥원장) ▲'도시재생과 문화적 개입 전략'(제주문화도시센터 김병수센터장) ▲'주거복지정책으로 바라본 도시재생'(제주연구원 김수희박사) ▲'도시재생형 창업과 청년의 미래'(제주더큰내일센터 김중현센터장) ▲'도시재생과 커뮤니티 디자인'(前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김종익센터장)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주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내용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2020년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교육기간 2020.10.6.~10.8.(12강)
수강인원 15명 / 수료인원 : 8명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활동가 및 코디네이터 대상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전문교육으로 운영하였다.

이번 교육은 ▲민간주도 지역재생의 힘(리노베이션 오오시마 요시히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무와 제주 사례(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양민구팀장)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및 사업의 이해(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성순이박사) ▲도시재생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역량(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최형선실장) ▲도시재생 퍼실리테이션(라인업 라서현대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이해 팀워크숍(김해도시재생지원센터 정오락사무국장,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김지훈팀장, 이명훈팀장)이론 및 팀 워크숍 실습과정으로 운영하였다.

<2020년 마을도서관 활동가 양성교육>

교육기간 2020.3.1.~11.26.(10강)
수강인원 41명 / 수료인원 : 22명

마을도서관 운영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위한 기본교육과 커뮤니티 빌더 양성교육을 통해 양성한 도서관활동가들은 김영수도서관 마을도서관 운영을 돕고 있다.

<마을여행 큐레이터 양성교육>

교육기간 2020.10.22.~11.19.(10강)
수강인원 23명 / 수료인원 16명

제주추천여행과 함께 제주시 원도심 마을여행을 기획·실습해 보는 교육과정으로 운영하였다.

<음식문화 특화교육>

교육기간 2020.7.10.~11.24.(32강) / 수강인원 136명

베지근연구소와 함께 제주시 원도심 인문학 프로그램과 함께 컬러러니 투어, 쿠킹클래스 등 다양한 음식문화 교육을 운영하였다.



<도시재생·사회적경제 교육 및 워크숍>

교육기간 2021년 1~2월 예정(6강)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도시재생사업 참여 주체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화 교육으로 기획되었다.

이번 교육은 ▲제주지역 사회적 경제의 이해(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김호철 상임대표) ▲지역문제, 도시재생으로 해결하기(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윤전우 거버넌스단장) ▲지역의제 발굴 및 해결 워크숍(서울도시재생콘텐츠학교) 으로 구성되었고 실제적인 소규모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는 리빙랩이 후속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 전략기획팀 064-727-0612

도시재생·사회적경제 콘텐츠 리빙랩 참여자 모집

도시재생사업 연계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및 지역문제해결 워크숍 운영을 통한 주체역량강화

도시재생 콘텐츠 분야
기대님 / 예니지 / 리빙랩 / 워크숍 / 특강 등

모집공고
교육명 | 도시재생·사회적경제 콘텐츠 리빙랩
대상 | 제주도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 / 도시재생 및 사회적경제 조직 장비를 희망하는 예비 창업가 / 도시재생사업 참여주체 (약 30명 내외)
교육비 | 무료
일정 | 2021년 1월 중순 (예정)
장소 | 도시재생 상상도약 지원센터(제주시 칠성로길1)
프로그램 |

연차	일정	주제	강사
개강	14:00-14:10	일제 및 환영식	시행 관리자 박영민
1강	14:10-14:40	제주도 사회적경제 현황	김영수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장
2강	14:40-18:00	지역문제, 도시재생으로 해결하기: 서울 연초동 워크숍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윤전우 거버넌스단장
3강	14:00-15:00	지역의제 발굴	김해도시재생지원센터
4강	16:00-17:30	워크숍	김지훈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5강	19:00-21:00	리빙랩 기획	김지훈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6강	13:00-15:00	워크숍	김지훈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연차별 리빙랩은 1년 이상 운영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0. 11. 19. (목) - 12. 31. (목) 1차 신청 마감 (수업료 없음 후, 추가 모집 예정)
접수방법 |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www.jejuurban.org) 권고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jejuurban@jejuurban.org) + 온라인 신청/접수 (https://forms.gle/1t4uGEE5VWwBzC7)
문의 |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전략기획팀 (064-727-0612)



01 눈내리는 오일장, 제주시 1969년, 강만보
02 길거리 썰매타기, 제주시 오현단길, 1969년, 서재철

제주의 일상, 흑백사진에 스미다

제주시 원도심
근·현대 사진수집 아카이빙 사업

옛 필름 속에 담긴 제주의
평범했던 일상의 모습들.
지금은 찾아 보기 힘든 정겨운
풍경들이다. 지금은 만날 수
없어 더욱 애뜻한 그 시절
제주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
만나보자.





01



04



02



03



05

- 01 짐꾼. 제주시 동문로터리. 1967년. 서재철
- 02 눈치우기. 제주시 칠성동. 1969년. 서재철
- 03 대학 예비고사. 제주시. 1969년. 서재철
- 04 관덕정 광장. 제주시. 1993년. 강정호
- 05 이삿짐. 제주시 원정로. 1970년. 서재철

문화를 통해 지역을 이야기하다

지역의 문화는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확보해 브랜드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제공하기도 한다. 지금부터 지역의 문화를 활용해 성공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지역이 가진 고유의 문화를 강화시키는 것은 도시재생과 맞닿아 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이라는 전국적으로도 인지도 높은 지역의 문화 자원을 활용해 관광 콘텐츠를 개발했다. 한식, 한지, 한옥 등 전통 문화 콘텐츠를 강화해 전통 문화특구로 한옥마을을 지정, 전통적 생활상과 한옥을 지키기 위한 지원을 통해 2012년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에 지정되기도 했다.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상품 개발은 외국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독일의 하멜른시는 산업 중심의 도시에서 관광도시로 정체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유명한 동화를 활용했다. '유혹의 마을'이라는 콘셉트로 로컬 브랜드 정체성을 변모시키며 지역의 숨어 있는 가치와 그것을 담은 다양한 문화와

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램 등을 전면에 드러나게 했다.

또한 일본 사카미나토 시 '요괴마을'도 요괴 만화 요소를 활용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 사례다. 지역과 전혀 상관없는 가치가 아니라 해당 지역 출신 만화가의 창작물을 지역을 상징하는 가치로 활용해 지역 문화 콘텐츠를 만든 것이다. 비틀스의 고향 영국의 리버풀도 산업 도시에서 창조문화도시로 정체성의 변화를 모색하면서 비틀스라는 리버풀만의 문화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웠다.

지역이 갖고 있던 문화 콘텐츠는 아니지만 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문화를 활용해 새로운 문화를 재창조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의 베이징 798 예술구가 그 예다. 군수 무기공장이 있던 지역을 예술공장이라

는 콘셉트와 그와 관련된 문화 콘텐츠로 재창조한 베이징 798 예술구는 2006년 '문화창의 산업특구'로 지정되어 베이징 문화와 현대 예술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지역성을 강조할 수 없다면 트렌드에 부흥하는 문화 콘텐츠를 활용했을 때 경쟁력을 확보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콘텐츠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생산 가능한 문화 콘텐츠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베이징 798의 경우 기존에 로컬이 갖고 있지 않았던 정체성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미 지역 내 관련 분야의 예술가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즉 인적 자원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활용 가능한 자원이 있었기에 지역의 대표성 있는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좌) 전주에 방문하면 한지가 만들어 지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우) 한지공예로 만든 무드조명

(좌)독일 하멜른시의 '피리 부는 사나이'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
(우)비틀스의 고향답게 영국 리버풀에는 비틀스를 기념하는 다양한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다



지속가능한 문화 콘텐츠를 위한 조건

지역의 문화 콘텐츠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차별성을 갖춰야 한다. 상당수 지방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략 도입 시 선진사례나 경쟁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도입하다 보니 실제 경쟁하게 되는 주변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차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해서 세상에 없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다만 우리지역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경쟁자를 인지하고 이들의 콘텐츠와의 중복여부를 확인하되, 비록 같은 콘텐츠라 할지라도 차별성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를 고려해봐야 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이처럼 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 콘텐츠의 성장은 지역의 정체성과 더불어 주민들의 라이프스타일에도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 더불어 지역의 이미지와 품격을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며 문화 산업과 문화 관광 등의 경제적 효과까지 이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국 지역 문화의 활성화를 다시 촉진시키는 순환적 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주민이 직접 동네를 발전시키다 2021년, 도시재생예비사업

도시재생의 성패는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얼마나 내실 있게 준비를 잘 하였는가에 달려 있다.
2021년 달라진 도시재생예비사업을 미리 만나보자.



도시재생 역량강화 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

도시재생예비사업은 그간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개별 운영되던 '주민참여프로젝트 사업,' '사업화지원 사업,' '소규모재생사업'을 통합한 것이다.

10인 이상 지역주민이 단기(1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를 지원(1곳당 최대 4억원)하는 사업이다. 선정규모는 약 80곳으로 총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존 '소규모재생사업'의 추진체계와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주민참여프로젝트'와 '사업화지원' 사업에서 추진하였던 도시재생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화 과정 지원 관련 컨설팅을 추가하여 좀 더 포괄적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하도록 세심하게 고안됐다.

기존 역량강화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개편한 만큼, 2022년부터는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완료한 지자체에 한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지역 자원조사·마을문제 해결 등 사업계획 구체화 및 창업육성' 사업은 그간 주민들만으로는 다소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사업계획에 포함한다.



도시재생예비사업 (舊 소규모재생사업)

추진배경 -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점 단위 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 (2018.04 도입)
> 지역 주민의 참여경험을 토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준비

사업목적 - 지역 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점단위 재생사업을 지원하여 주민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 도모
- 소규모 사업 경험을 토대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의 발전 기반 마련

사업대상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
①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② 쇠퇴지표 기준을 충족하는 행정 읍·면·동
③ 집계구·필지 단위로 쇠퇴도 증빙이 가능한 지역 등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 요강

지원사항 - 내용 : 주민 제안의 주민공동체 거점공간 등 소규모 H/W사업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 S/W사업
- 금액 : 사업별 0.5~2억원 (총사업비 최대 4억원, 국비:지방비=5:5)
- 기간 : 1년 (단년도사업)

신청 10인 이상의 주민(단체)가 직접 지자체에 사업 제안
- (지원기관 지원) 사업제안 검토 및 구체화
- 지자체장, 광역지자체로 제출
- 광역지자체장, 국토부

대상사업 - 뉴딜사업 기반구축을 위한 뉴딜사업화 기반 조성사업, 커뮤니티 거점 조성사업 등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사업
> (뉴딜사업 기반조성) 지역자산 조사를 통한 재생계획 수립, 도시재생 경제조직 설립 등
> (커뮤니티 거점조성) 공동체 활동거점 조성,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마을도서관 및 마을공방 조성, 등
- H/W사업 포함 권장 (단, H/W 위주 사업이나 단순 시설사업 지양)
> 사전에 부지, 공간 확보 등 선수행, 공유지 활용 권장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275호 (2020년 9월 23일)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주민이 만들어가요 2020년 건입동 도시재생 주민제안공모사업 실시

건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는 건입동 주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주민참여 및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 제안공모사업을 실시했다.

선정 단계는 총 여섯 단계이며, 7월 17일부터 진행하여 10월 31일 사업 완료되었다.

돌보지 않던 자투리 공간을 꽃이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사람들을 머물게 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바르게살기운동건입동위원회 <우리동네 사랑방, 심이 있는 자투리 공원 만들기>.

"고사리손으로 큰울림을" 단체가 만든 고사리손 힐링쉼터 1호와 그 곳에 전화부스를 개조해서 만든 야외의 작은 <고사리손 책방>덕에 커다란 나무 아래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책 읽어 주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된다.

제동책친구들은 <우리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책 마을>로 책꾸러미를 제작하여 동초동 학교에 제공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자율방재단건입동위원회 <클린하우스도 아름다울 수 있다! 건입동 반짝 반짝 클린하우스 만들기>는 클린하우스 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정리를 다해, 깨끗한 마을을 만들어 주었다.

함께 나누는 이웃의 훈훈함을 전하는 건입동 새마을 부녀회 <건입동 내 어려운 사랑의 반찬 나눠드리기>, 새마을지도자건입동협의회 <건입동 독거어르신 뽕송뽕송 행복나눔 빨래봉사> 모두가 건입동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2020년 올해 사업은 마무리 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년, 내후년 지속되고 확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왼쪽) 바르게살기운동건입동위원회 <우리동네 사랑방, 심이 있는 자투리 공원 만들기> (가운데) 고사리손으로 큰울림을 <고사리 손으로 주민힐링 쉼터 만들기> (오른쪽) 제동책친구들 <우리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책 마을>



(왼쪽) 자율방재단건입동위원회 <클린하우스도 아름다울 수 있다! 건입동 반짝반짝 클린하우스 만들기> (가운데) 건입동 새마을 부녀회 <건입동 내 어려운 사랑의 반찬 나눠드리기> (오른쪽) 새마을지도자건입동협의회 <건입동 독거어르신의 뽕송뽕송 행복나눔 빨래봉사>



대정에서 함께 쓰는 음식에세이 모슬포 추억의 밥상



서귀포시 대정읍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센터장 강경문)는 지난 10월 26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2리 다목적회관 대회의실에서 '모슬포 추억의 밥상-옛날엔 영 먹었주' 에세이 발간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0 대정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모슬포 추억의 밥상' 운영결과를 보고하고, 열의를 갖고 50시간 이상의 오랜 시간 참여한 대정 주민들의 요리에세이 발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에세이집에는 대정 주민들의 추억 속 이야기와 어릴 때부터 먹어온 제주식 콩국, 멜지짐,

보말죽, 논쟁이메밀범벅, 메밀세미떡과 냉국 등의 요리법이 담겨있다. 또 최근 추가열, 윤복희 등 가수들의 노래를 작사해 대중에게 알려진 베스트셀러 작가 강원석 시인의 축시 '밥도 수록됐다. 제주도의회 양병우 도의원은 "주민이 직접 쓴 모슬포 음식이야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서가 될 것이라고 본다"며 "앞으로 활기찬 대정이 되어가는데 주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강경문 대정읍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은 "가장 보편적 공감대를 갖는 음식에 대한 추억을

글로 엮은 에세이집의 발간과 유명 시인의 시비 건립을 통해 대정읍의 문화적 도시재생이 한 발 더 나아갔다"며 "대정읍만의 매력을 활용한 문화적 도시재생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계속해서 소득을 증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정읍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이번 에세이집을 일반에게 공개해 대정의 식문화를 알리고,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대정오일시장 탐방 및 쿠킹클래스 체험관광(컬리너리 투어)을 운영할 사업인력 양성을 위해 교재로 활용할 예정이다.

주민과 대학의 협력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대정읍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경희대와 '2020 모슬포 리빙랩'

서귀포시 대정읍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센터장 강경문)는 대정읍 주민 및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학장 이영준)와 함께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대정읍의 특산품과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상품과 레시피를 개발하는 '2020 모슬포 리빙랩'을 운영했다.

서귀포시 대정읍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마중물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지역주민과 대학과의 협업과 연대를 통해 현장에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리빙랩(생활연구소)'을 기획했고, 경희대학교 조리·서비스경영학과 4명, 호텔(hospitality)경영학과 3명, 산업및시각디자인학과 7명 등 총 학생 18명이 참가하는 대학의 지역사회 혁신프로젝트를 유치하여 2주간의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지역 공공시설의 적극적인 활용을 고민해오던 대정읍 안성리 마을회(이장 고석중)의 협조로

'안성리 기록원(대정읍 추사로 15)'에서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기간을 가지고 철저한 방역 아래 진행됐다.

대정읍 역사와 식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경희대 파트너들은 대정 주민 13명과 함께 대정읍 특산물인 방어, 미늘, 청보리 등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완료했고, 국내 대학교 중 유일하게 조리학과와 디자인학과가 함께하는 경희대학교의 이점을 살려 상품 패키징 디자인, 굿즈 개발, 지역 상점을 위한 디자인 컨설팅을 시행했다.

7월 31일 대정읍일시장에 등장한 모슬포 리빙랩 팀의 팝업스토어는 자체 SNS 홍보와 대정읍 도시재생 연락망을 통해 입소문을 타 성황리에 운영돼 조기 마감되기도 했다.

김은준 하모3리 이장(대정읍 도시재생 주민협의회 부회장)은 "상인들의 협조로 오일시장 입구에 20명이 넘는 인원이 판매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지역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경희대 팀은 별도로 지역 카페와 협재해수욕장 플라마켓에 참가해 시식회를 갖는 등 개발된 시제품의 관광객 선호도를 조사하기도 했다.

경희대학교 총괄·지도 교수인 우대식 교수는 "대학이 교내에서만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학습과 실천을 잇는 것이 앞으로 우리 대학들의 역할이라고 본다"며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준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송호철 대정읍장은 "모슬포 리빙랩이 대정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 준 만큼 읍에서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하겠다"며 총 13개의 시제품과 굿즈 등의 성과에 만족감을 표현했다.

신산머루 마을카페 카페 온

제주시 신산머루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주민공동체역량 강화 마을·일자리창출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민공용공간을 마련했고, 신산머루 마을관리사회협동조합에서 그 운영을 맡고 있다.

특히, 마을카페 카페 온 Café On에서는 주민들의 주도로 제주의 청정 재료를 이용한 메뉴 개발을 진행했고, 내부 운영 구성을 통해 주민들의 이야기 공간 및 마을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카페 온은 신산머루의 아름다움과 제주의 맛을 알리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마을 행사 등을 통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익을 나누고 있다.



제주시 원도심 내 재생공간과 즐길거리 역은 '지금, 여기 제주 원도심' 소책자 발간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부성현)는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재생공간 등 29곳의 장소와 이야기를 담은 '지금, 여기 제주 원도심' 소책자를 발간했다.

상생모루, 김영수도서관, 제주책방, W360 등 주요 공간들이 잘 소개된 이 소책자는 제주시 삼도2동과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 등 원도심 일대를 걸으며 즐기는 방문객들의 시각에 최적화돼 제작됐다.

이 책자는 제주 전통주거형태인 안거리 바깥거리를 볼 수 있는 '제주책방'과 '산지천 갤러리' 등 산지천 일대, 그리고 살아있는 대표적 전통시장인 동문시장, 100년된 근대건축물인 '순아커피', 칠성로의 옛 명물 '심지'카페 일대, 오랜 옛 길인 '한짓골'과 인근의 '박씨 초가', 그리고 옛스러움을 체험하는 '항사당'의 서문남문 일대, '제주성지'와 '제이각'을 걸어보는 제주성지 일대 등 각각의 테마로 구성돼 보는 즐거움이 쏠쏠하다.

책자 부록에는 원형이 남아있는 원도심 옛길 9곳이 담겼고, 관덕정 등 주요 장소의 근현대 사진도 담겨 있어 '도심올레' 안내서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는 "늙은 집과 도로를 보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라지는 장소와 깃든 이야기의 가치를 찾는 것도 도시재생의 방법 중 하나다. 소책자가 원도심을 방문한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JEU URBAN REGENERATION CENTER